

열녀전(烈女傳) 서술 방식 일고(一考)*

: <수칙전>(守則傳)을 중심으로

김유미**

<차 례>

- I. 서론
- II. <수칙전>의 서술 방식
- III. 교훈성의 약화와 개인의 발전: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열녀 이씨(李氏)를 다룬 이옥의 <수칙전>을 중심으로 동일 인물을 다룬 전(傳) 작품인 성해응의 <이수칙>, 이견창의 <이수칙전>, 그리고 『정조실록』의 ‘수칙’ 관련 기록을 비교하여 작품의 서술 방식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본다. 성해응의 <이수칙>과 이견창의 <이수칙전>은 유교적 이념의 전범으로서

* 본 논문은 『The Life and Works of Yi Ok』의 5장 “The Lives by Yi Ok”에 포함된 내용을 수정 및 심화시킨 것이다. 박사 논문은 정조(1752-1800)의 문체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여 이옥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인물이라는 점과 그것에 기반한 작가의 문학관을 연구하였다. 그 중 5장은 초자연적 존재, 사회 하층민, 지식인, 그리고 충효열을 구현한 인물전(傳)을 분석하였는데, 충신, 열사의 비극적인 면모를 통해 사회를 비판한 작품과 같은 맥락에서 <수칙전>을 연구하였다. 입전 인물 열녀 이씨의 비극적인 면을 서술하는 기법을 이옥 작품 전반과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본 논문은 그러한 서술 기법과 더불어 작가의 논찬(論贊)에 강조점을 두어 <수칙전> 작품이 가지는 목적성과 전(傳) 작품의 유동성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수칙전> 작품은 이념적으로 성리학적 윤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입전 인물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성을 약화시켜서 인물 개인의 가치를 찾는 데 무게를 둔 작품임을 밝힌다. 또한 <수칙전> 기존 연구사 검토 결과, 박사 논문에서 다룬 부분은 국내 학계에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았다. (Youme Kim, 『The Life and Works of Yi Ok』,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173~187쪽.)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입전 인물 이씨(李氏)의 본받을 만한 의로움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이옥의 <수칙전>은 등장인물의 슬픔과 이웃 사람의 의심을 보여주는 일화를 통해 인물의 희생과 고독을 강조하고, 덕행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불운한 인물로 이씨를 그렸다. 또한 <이수칙>과 <이수칙전>이 인물의 행적 중심으로 서술하여 기록의 신빙성을 추구한 데 비하여, <수칙전>은 서사 배경과 사건을 창조하여 기록의 객관성보다는 극적 구성을 추구하였다. <이수칙>과 <이수칙전>이 인물 행동의 동기를 이성적 판단에서 찾고 성리학 가르침의 정당성을 내세운 반면, <수칙전>은 인물 행동의 동기를 '여성 특유의' 편벽된 감정에서 찾는다. 이를 통해 <이수칙>과 <이수칙전>이 입전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 그 인물을 통해 당대의 흥망을 읽어내도록 구성된 반면, <수칙전>은 전(傳) 작품에서 기대되는 교훈성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의 가치를 찾는데 좀 더 무게를 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성해응, 이건창, 이옥, 수칙, 열녀전, 한국 고전문학

I. 서론

본 논문은 열녀 이씨(李氏)¹⁾에 관한 기록인 이옥(1760-1815)의 <수칙전>(守則傳) 작품을 중심으로 동일 인물을 다룬 성해응(1760-1839)²⁾의

1) <수칙전>에 묘사된 여성의 성은 이씨(李氏)이며, 수칙(守則)은 세자궁에 속한 종 6품 내명부의 품계이다. 이씨의 절행에 따라 여관(女官)들에게 내리는 칭호 중의 하나인 수칙(守則)이 내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씨로 명기한다. 장헌 세자를 모신 궁녀 이씨는 남편이 죽고 절개를 지키는 부인의 경우와는 다르다. 하지만, 조정에서 이씨에게 정렬(貞烈)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고, 이옥, 성해응, 이건창도 정(貞)과 렬(烈)을 다한 인물이라고 명시하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이씨를 넓은 의미의 열녀(烈女)라고 보겠다.

2) 성해응(1760-1839). 조선후기의 학자. 자는 용여(龍汝), 호는 연경재(研經齋). 규장각 검서관으로 일함. 현존하는 인물전 중 517명을 뽑아 그들에 대한 전을 창작하였다. 정조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과 그의 활발한 전 창작 활동을 고려해 볼 때, 전 창작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적 요구를 잘 반영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집은 『연경』

<이수칙>(李守則)³⁾, 19세기 문장가인 이견창(1852-1898)⁴⁾의 <이수칙전>(李守則傳) 작품의 서술 방식을 연구한다. 입전 인물 이씨는 사도세자로 더 잘 알려진 장헌세자(1736-1762)를 모신 궁녀였다. 장헌세자 사후 궁을 떠나 30년 동안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가까운 인척을 제외하고서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하며 수절을 지켰다. 이런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여관(女官)에게 주어지는 종 6품의 관직인 수칙(守則)을 받는 인물이다.

본 논문이 이옥의 작품 중에서 <수칙전>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옥의 전(傳)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도둑, 기생, 백정과 같은 사회 하층민,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인과 예능인, 중인 여성과 양반 남성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제와 소재의 특이성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이옥이 당대 문학적 관습과 정조의 문체에 대한 정책에 저항하는 데서 의의를 찾았다.⁵⁾ 입전인물과 사건이 이채로운 작품에 비하여 충, 효, 열을 구현한 인물에 대한 작품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유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대 문학적 관습은 물론이요 지엄한 왕의 명령에도 저항했던 이옥이라는 작가의 이미지가, 성리학 윤리이념의 화신을 그리는 전의 작가라는 점은 잘 어우러지지 않기 때문이다.⁶⁾ 이옥은 충, 효, 열을 구현한 인물에 대해서도 상당

재전집』(研經齋全集)이 있다.

- 3) 이옥의 <수칙전>, 이견창의 <이수칙전>과 달리 성해옹이 기록한 이씨에 대한 기록은 <이수칙>으로 되어 있다. 전(傳)이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으나, 이씨의 가계와 절개를 지키는 행동에 대한 기록, 그리고 포폄으로 이루어진 <이수칙>은 전과 매우 가깝다.
- 4) 이견창(1852-1898).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봉조(鳳朝/鳳藻). 호는 영재(寧齋). 김택영에 의해 여관십가(麗韓十家)에 포함될 만한 대문장가로 꼽혔다. 문집은 『명미당집』(明美堂集)과 『당의통략』(黨議通略)이 있다.
- 5) 이옥 연구 초기에는 작품의 사회사적 의미, 예를 들어 ‘교화론의 청산’, ‘반 중세/봉건/성리학적’, ‘열 이태올리기 비판’ ‘당시 문풍에 대한 저항정신’ 등의 사회적 주제 의식이 부각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이를 비판하는 연구들도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수의 작품을 썼는데 해당 작품으로는 <차최이사전>(車崔二義士傳), <수칙전>(守則傳), <상랑전>(尙娘傳), <열녀이씨전>(烈女李氏傳), <생열녀전>(生烈女傳), <협효부전>(峽孝婦傳)을 들 수 있다. 위 작품은 이옥의 <이홍전> <심생전> 등의 작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작가 특유의 재치와 재미가 다소 떨어진다. 제목에서만 보자면 <차최이사전>의 차예랑, 최효일 두 인물은 충(忠), <협효부전>은 효(孝)를, 그리고 <생열녀전> <열녀이씨전>, <수칙전>은 정렬(貞烈)을 구현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이러한 유교적 전범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수칙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전형적인 열녀를 그리는 작품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다.⁷⁾ 인물-설명-논찬이라는 전형적인 전(傳)의 구성 방식을 갖추었고 열(烈)을 실행한 인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수칙전>을 보면 그러한 시각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일 인물을 다룬 여러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보면, 작가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

6) 이런 점에서 이옥 작품에서 보이는 당대 이념을 향한 다양하고 때로는 착종되는 시각을 연구한 논문은 의미가 깊다. 정인혁(『조선후기 전의 단형서사체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6)은 전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조선후기에 쓰여진 전들 가운데 일반적인 전통 전으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문제적인 작품을 '전계 단형서사체'라고 지칭하였다. 이옥의 <수칙전>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선후기의 전 작품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7) 이옥의 <수칙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래와 같다.

이현우는 『이옥소품연구』에서 <수칙전>을 이야기의 기이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라고 보았다. (이현우, 『이옥소품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75쪽).

최기숙은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에서 성해응, 이옥, 이진창의 기록을 비교하고 있으나 세 작품의 차이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최기숙,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 서해문집, 2007, 190~195쪽.)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서술방식과 열 관념』, 『어문학』, 1995, 397~418쪽.

이지양, 『이옥과 풍몽룡(馮夢龍)의 산문에서 통속성과 진정의 관계 -여성의 열절을 소재로 한 전(傳)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16, 2008, 93~128쪽.

이지양,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절'의 문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29, 2002, 433~462쪽.

형상화와 서술기법의 다양성을 볼 수 있다.

〈수칙전〉은 등장인물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정보와 단순한 흡수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작가가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하게 투영하고 글의 서술 방식을 통해 전(傳)에서 기대되는 교훈성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교훈성의 약화는 입전 인물 개인의 가치를 찾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열(烈)의 실천자로 이씨(李氏)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일화를 삽입하여 이씨의 슬픔과 고독을 드러냈고, 인물 형상화에 어울리는 배경을 허구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대상 인물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천도(天道)를 회의함으로써 입전 인물 개인이 과연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대외적으로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회의를 표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한 〈수칙전〉 번역은 실시학사 고전문학에서에서 역주한 『완역 이옥전집』을 참고하였다.⁸⁾

II. 〈수칙전〉의 서술 방식

1. 인물의 희생과 고독 부각

조선 왕조에서 전(傳)은 기본적으로 역사의 보충물이며, 유교적 덕목을 수행한 인물을 사회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작품이다.⁹⁾ 문인들이 묘사한 열녀 인물들은 눈에 띄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성 인물들은 자신이 열을 행하는 당위성을 일순간이라도 부정하거나 회의하지 않는, 굳은 의

8) 이옥 지음,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완역 이옥전집』 2권, 휴머니스트, 2009.

9) 전(傳)장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4;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한국 고전 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1993; 정인혁, 『조선후기 전의 단형서사체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2006.

지의 소유자들이며, 열의 실천을 위한 육체적, 정신적 희생을 묵묵히 감내한다. 이러한 의지와 인내는 그녀들의 유년기에서부터 일관된 성격으로 종종 묘사된다.¹⁰⁾

이옥의 <수칙전>도 표면상으로는 이러한 열녀 만들기의 작법(作法)을 따르고 있다. 이씨는 방 안에 있으면서 밖을 내다보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항상 사나운 개 십여 마리를 길러 여인을 지키게 하고, 밖에 있는 여인이 외출을 하면 비록 닷새 동안이라도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 또한 집에 불이 나도 방 안에 있던 여인은 나오지 않았다.¹¹⁾ 이러한 기술은 성해응, 이견창, 실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칙전>에서 중심이 되는 일화는 불이 난 방에서 이씨가 떠나지 않았다는 화재 관련 일화와 물고기를 놓아주는 일화이며 다른 행적은 나열로 간단히 처리하였다. 이옥의 작품에서는 이씨의 집에 불이 난 것을 그녀를 시험하고 싶은 이웃의 행동으로 기록한다. 이것은 유폐생활을 하는 이씨가 받는 의심과 냉대를 강조한다. 실록과 이견창, 성해응의 글에서는 이웃집에서 먼저 불이 나고 그것이 이씨의 집으로 옮겨 붙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²⁾ 화재 일화가 주변의 냉대를 강조한다면, 물고기 일화는 이씨

10) 남성을 다룬 전은 성장의 과정에서 인간성이 바뀌어 모범적인 인물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런 재탄생이 거의 없다. 남성 작가들이 여성인물에게 한 치의 일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력적 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열녀전에 관한 많은 논의와 작품 중 『조선시대의 열녀담론』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이혜순, 김경미 역주,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위 저서에서는 열녀전 서술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열녀전의 작가는 내면 정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느낌을 준다. 무엇보다 문사들이 중시한 것은 열녀전이 줄 수 있는 사회적 효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각 열녀의 개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의 행위를 모두 ‘의리’ 하나로 묶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2002), 위의 책, 19쪽.)

11) 『완역 이옥전집』, 301쪽.

12) 최기숙(2007), 위의 책, 191쪽에서 실록과 이옥 <수칙전>기록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가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외로움과 고독, 희생을 부각시킨다.¹³⁾ 이념의 수호자가 아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동정하는 인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밖에 있는 여인(이씨의 이모)은...장에서 본 작은 새우와 물고기를 사서 연지 속에 놓아주고, 그 자리에서 잠깐 바라보다가 탄식하며 떠나곤 하였다.¹⁴⁾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씨 대신, 이씨의 동거인인 이모를 통해 작가는 독자에게 이씨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¹⁵⁾ 역사 기록인 『정조실록』이 이모의 이야기를 채택했듯이, 이모는 이씨를 다룬 모든 작품에서 이씨의 생애를 증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수칙전>은 한층 나아가, “그 이모 또한(빛질과 목욕을)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그 분(이씨)에 있어서랴” 등의 표현으로 이모와 이씨의 출궁 이후의 삶을 같은 궤도에 놓는다. 따라서 이모가 장에서 산 새우와 물고기를 놓아주고 한숨을 쉬며 돌아온다는 일화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수절을 지키는 그들의 삶이 실제로 희생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갇힌 이씨와 이모를 상징하는 시장에 나온 새우와 물고기,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풀어주고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장면은 그녀들의 숨겨진 욕망,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자유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물고기 일화는 실록, 성해응과 이견창의 기록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옥의 창작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물고기 일화의 삽입은 이

13) Youme Kim(2014), 위의 논문, 173쪽.

14) 『완역 이옥전집』, 302~303쪽.

15) 물고기 관련 일화가 이씨가 아니라 이씨의 이모의 행적으로 묘사된 점은, 당대 열녀전의 작법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씨를 정렬의 화신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방에 갇혀 탄식하고 슬프게 일생을 보내야 하는 희생자로 느껴지게 한다.¹⁶⁾

또한 작가는 입전 인물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는 대신, 적절한 시기에 인정이나 포상을 받지 못한 점을 슬퍼하고 있다.

<수칙전> 생각건대 월암 근처에 밤마다 필시 흰 기운이 열렬히 솟아 달과 별에 뻗쳐 있기를 오래도록 하였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 기운을 엿보고 그분을 찾아가 인사드린 자가 없었다. 아아!¹⁷⁾

열녀 이씨가 절행을 하는 시기에 주변에서 보여준 무심함을 작가는 크게 한탄하고 있다. ‘임금의 하교가 있는 뒤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정렬을 상세히 알게 되었다’¹⁸⁾라는 문장에서처럼 작가는 때늦은 보상을 그다지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보상 받지 못한 절행의 시간은 그 당시를 사는 개인에게는 고생이다.¹⁹⁾

역사 기록의 보충물인 전(傳) 작법 전통에 따라 성해응과 이견창의 기록은 이씨를 오점 없는 이념의 화신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만을 골라 기록하였고 그렇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은 삭제되거나 최소화되었다. 깔끔하고 효율적인 주제 구현을 위해 긴요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린 결과, 글이 상대적으로 짧고 건조하다.²⁰⁾ 하지만 이옥의 글에서 나타난 물고기

16) 자유롭게 노니는 물고기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은 장자(莊子) 추수(秋水)편에 나온 어락(魚樂)편을 연상시킨다. 이옥은 범을 잡을만한 매를 다룬 <호웅>(虎鷹) 등의 작품에서도 사람에게 잡혀 길러지는 동물을 묘사하며 능력이 있지만 불행하게 사람에게 잡혀 살아가는 생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17) 『완역 이옥전집』, 305쪽.

18) 위의 책.

19) 임금의 하교 아래, 이씨가 수칙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에도 작가는 특별한 만족을 나타내지 않는다.

일화는 이씨를 이념의 화신으로 그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쓸쓸히 갇힌 삶을 사는 그녀들의 고독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열녀 이씨에 대한 이미지에 오히려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 인물이 사용되는 열녀전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씨의 슬픔을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²¹⁾ <수칙전>은 입전 인물이 실현하는 이념의 정당성을 독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²²⁾ 작가가 인물에게 바치는 빛나는 칭송이 아니라 인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을 본 독자는 해당 인물을 인생의 귀감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다.

2. 사건의 극적 구성

실록의 인물 기록들이 그러하듯, 『정조실록』 1791년 7월 16일(신해일) 이씨에 관한 기록은 그녀의 행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하여 그녀가 받은 포상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다. 이씨의 지난 30년간 행적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씨 본인 대신 이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관(史官)의 주관적 개입이나 신분이 구체화되기 어렵거나 모호한 이웃들의 증언은 일절 배제되었다.²³⁾ 실록의 기록과 유사하게 이견창의 <이수칙전>은

20) 전(傳)의 전통적 작법에 충실한 성해응, 이견창의 전을 창작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가치를 낮게 매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히려 당대의 사회 가치 아래 영웅을 그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루샤오핑, 『역사에서 허구로』, 도서출판 길, 2001, 79쪽.

22) 위의 책, 138쪽. “열전은 사기 이래로 사회의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개인의 삶을 기록함으로써 왕조에 대한 파노라마적 시야를 제공한다. 전기는 분명히 개인의 실제 삶을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일반적 패턴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전기는 모델, 전형, 본보기, 이상적 유형을 보여준다. 전기는 후손에게 성공과 칭찬을 받는 행위 과정을 보여주면서 본받아야 할 모델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가끔은 하지 말아야 할 잘못을 설명하는 위협적인 예로 기능하기도 했다.”

이씨의 사회적 신분, 궁에 들어가서 장헌세자를 모시게 된 계기, 그리고 세자가 죽은 뒤 스스로 선택한 유패생활, 그러한 사연이 궁에 알려지게 된 경위로 구성되었다.

<이수칙전> 이씨는 한양의 남문 밖에 사는 양가의 자제이다. 영조 말에 그의 외가에 궁녀가 된 사람이 있었다. 이씨가 15세때 어머니를 따라 궁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장헌세자를 모시게 되어 하룻밤을 지내고 나왔다. 출궁한 뒤 스스로 그것을 깊이 숨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장헌세자가 죽었는데, 이씨는 이때부터 씻지도 않고 빗질도 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조그만 방에 거처하면서 밥을 먹을 때나 대소변을 볼 때도 방을 떠나지 않아서, 마치 그 모습이 미친 사람과 같았다. 부모가 그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자 악취가

- 23) 『正祖實錄』 정조 재위 15년(1791년) 7월 16일. “노파(이씨의 이모)가 그 찾아온 뜻을 짐작하고 스스로 진술하기를, ‘저 방안에 있는 여인은 내 이질(姨姪)이다. 나는 일찍 과부가 되어 궁중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조카도 그때 나이 10여 세에 역시 나를 따라 궁궐에 들어가 경진년에 경모궁(景慕宮)의 침소를 모셨고 그 뒤 얼마 안 되어 나와 조카는 궁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 소천어동(小川魚洞)에서 이리로 이사 온 것도 십여 년이 되었다. 조카는 임오년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폐인이 되어 세수도 하지 않고 빗질도 하지 않으면서 항상 이불로 몸을 감싸고 방 안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해도 보지 않으며 심지어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문밖에 나간 일도 없고, 개 10여 마리를 길러 도둑을 막았다. 이웃집에 불이나 불길기 집으로 번졌으나 그래도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웃사람들이 감동하고 기특하게 여겨 다투어 불을 꺼서 죽지 않았다. 지금 나이 45세인데 머리가 이미 백발이 다 되었다. 조카와 내가 내력을 밝히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조카의 어미로 의심할 뿐 감히 말하지 못하니, 이는 내 죄이다.’(婆揣其來意, 乃自陳曰: 彼房內女子, 吾之姨姪也。 吾早寡, 入役于宮中, 姪時年十餘, 亦隨吾入宮, 歲庚辰, 承恩于景慕宮, 未幾吾與姪, 出居於外。 自小川魚洞, 轉徙到此, 亦十餘年。 姪自壬午, 誓死自廢, 不盥不櫛, 恒居以衾纏身, 不離一室, 不見人面, 不見天日, 雖便矢, 未嘗出於戶, 畜吠犬十餘, 以防盜。 當比舍失火, 火延于室, 猶臥不起, 隣人感異之, 爭救火得不死。 年今四十五, 頭髮已盡白矣。 姪與吾蹤跡不明白, 人謂吾姪之母, 疑之於不敢言, 是吾罪也。)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이웃 사람들도 괴이하게 여기고 비웃으면서 마침내 시집가지 못할 여자라고 부르는 지경이 되었다.²⁴⁾

성해응의 <이수척>도 이씨의 유년시절, 궁에 들어온 계기, 장헌세자의 총애를 입은 후 세자가 죽자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맹세, 유폐생활, 그리고 궁에 알려져 관직을 받은 일이 행적의 전부이다.

<이수척> 이씨 수척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부모를 잃고 이모에게 의지해 살았다. 침선을 하며 살았는데, 이모는 일찍이 과부가 된 자였다... 이씨는 십 여 살에 이모를 따라 들어왔다. 임오년에 세자가 죽었다. 이씨는 곧 시집을 가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집을 월암 근처로 옮겼다... 목욕을 하지 않고 천으로 머리를 감추었다. 하늘을 보지 않은지 삼십년이였다. 이웃에서 불이 나서 방까지 미쳤으나 나오지 않았다. 이웃사람들이 도와주어 살 수 있었다. 신해년 정조대왕이 그것을 듣고 늙은 궁인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다.²⁵⁾

<이수척전>은 이씨가 절행을 실현할 만한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임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이수척>은 전형적인 전(傳) 서술의 방법-이씨의 이름과 가족관계로 글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옥의 <수척전>은 이씨의 사회

24) 이견창, 『명미당전집』, 16권. “李氏。漢陽南門外良家子也。英宗末。其母黨有充掖庭者。李氏年十五。隨母入禁中。偶得侍莊獻世子。一夕而出。既出深自匿。人無知者。亡何。世子薨。李氏即不梳洗。晝夜處小室中。飲食便旋不離。狀若病狂者。父母問之不答。既久。臭惡不可近。隣里怪笑。遂以不售女稱。” 원문은 고전번역원 DB참고. <이수척전>의 번역은 차미희 외,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보고서, 2013, 198쪽 참고.

25) 성해응, 『연경재전집』 55권. “李氏守則佚其名。失父母依其姨母。業針線。姨母早寡。... 李氏年十餘歲。亦從之入。... 歲壬午世子薨。李氏遂矢死不嫁。... 移寓城外月巖村。不櫛沐。以帛蓋首。不見天者三十年。隣火及室而不出。賴隣人趨救得生。辛亥正宗大王聞之。遣老宮人以驗。” 원문은 고전번역원 DB참고.

적 신분이나 이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신 이씨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소, 즉 서사의 배경에 관심이 있다. 이씨의 집 근처 배경을 멀리서부터 가까이로 묘사하면서 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물에 어울리는 배경 구성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다.²⁶⁾ 작가는 입전 인물을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배경을 창작했고 창작을 했다는 점을 숨기거나 근거를 들어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이옥은 두 여인이 살고 있는 월암(月巖) 근처의 하얗고 높이 솟아 있는 큰 돌을 서술한다. 이 월암 근처의 돌은 귀하고 정렬한 기(氣)의 상징물이다. 아래와 같은 이옥의 설명은 이씨가 사는 곳이 얼마나 특이하고 대단한 곳인가를 미리 독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천지(天地)의 지정(至貞) 지열(至熱)한 기운은 물(物)에 모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모이기도 한다. 물(物)에 모일 경우...높게 솟은 돌이 되고..사람에 모일 경우 남자는 충신이 되고 여자는 절부가 되어 강유(剛柔)와 순박(純駁)이 그 바탕을 따르게 되는 것이니, 비록 서로 같지는 않으나 그것이 천지의 정렬(貞烈)한 기운을 모은 것임에는 동일하다...²⁷⁾

작가 언급(외사씨는 말한다)	배경 설명
천지의 지정, 지열한 기운 ⇒ 높게 솟은 돌이 된다	(수칙의 집 근처에) 큰 돌이 있어 백 척이나 된다
(오래 갈 수 있는) 흰 빛이 귀하다	— 돌의 빛깔은 매우 희다 — (돌 근처에) 흰 기운이 열렬히 솟아 오래도록 하였을 것이다

또한 작가는 그녀의 절행을 증명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측한다:

26) 이러한 공간구성의 특이성은 임유경(1995), 위의 논문, 406~411에서도 논의되었다.

27) 『완역 이옥전집』, 300쪽.

“(절행을 실천한 30년 동안 월암 근처에서) ‘하얀 빛이 필시 열렬히 솟아 달과 별에 뻗쳐 있기를 오래도록 하였을 것이다.’”²⁸⁾ 이러한 배경의 창조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희망적 추측은 성해응과 이견창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할 수 없는 이옥의 창작으로 보인다. 역사 텍스트에서는 사건과 인물이 창조될 수 없다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²⁹⁾ 이옥의 <수칙전>은 전통적인 전의 관습을 따른 것이 아닌, 허구적 요소와 작가 개입이 인물 행적 기술에 내재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열(烈)의 동기: 여성의 편벽한 감정

이견창과 성해응의 글에서 열녀 이씨가 자신을 스스로 집 안에 가두고 정절을 지킨 것은 논리에 의한 이성적 판단이었다. 성해응의 글에서는 “임오년에 세자가 죽었다. 그러자 이씨는 죽어도 시집을 가지 않기로 맹세하였다.”³⁰⁾ 라고 하여 세자의 죽음과 이씨의 맹세 사이에 어떠한 감정적 연결 고리를 찾아 볼 수 없다. 이견창의 글에서도 이씨는 장헌 세자의 죽음 이후 정치적 상황 판단을 통해 자주적인 결단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수칙전> ...외사씨(이견창)은 말한다. 애초에 이씨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뜻을 견고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 죽으려 할 따름이지, 돌아가신 세자를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돌아가신 세자께서 어떠한 분인데, 어찌 천한 사람이 감히 사사로이 이야기할

28) 위의 책, 305쪽.

29) “어떤 특별한 사건의 궁극적 의미는 그것이 가리키는 영원한 보편적 원리에 있다. 비록 사건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재현될 수 있고 실재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질 수 있을지라도 허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루샤오핑(2001), 위의 책, 99쪽.

30) 성해응, 『연경재전집』 55권. “歲壬午世子薨。李氏遂矢死不嫁。”

수 있겠느냐?”...이씨는 세자에게 은총을 받고도 그 일을 밝혀 말하지 않았으니, 만일 이 사실이 소문이 나서 세자에게 누를 끼친다면 그 죄가 이씨에게 있는 것이다. 이씨가 깊이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있었으니, 충성스럽고 또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다.³¹⁾

<이수칙전>에서 이견창은 이씨 동생의 말을 빌어, 이씨의 행적과 동기를 설명한다. 이씨는 장헌세자를 정치적 위협에서 구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극도로 배제한 삶을 살기로 한다. 이에 반하여 <수칙전>에서 이옥은 이씨의 열(烈)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부인 특유의 치우친 성정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당대 사회가 요구하고 권장하는 유교 윤리를 교육받거나 직간접적으로 감화되어서가 아닌, 한번 맺히면 스스로 풀리지 않는 여성의 편벽된 성품이 낳은 결과물이다.

<수칙전> ...옛 일을 두루 살펴보면, 부인으로써 능히 늙어 죽을 때까지 사특하지 않은 이는 많고, 남자로서 힘겹게 평생토록 절조를 지키는 이가 세상에 드무니 이것은 어찌서인가? 어찌면 부인의 치우친 성품이 안 번 맺으면 스스로 풀리지 않으니 그 이치가 그런 것인가?³²⁾

성해응과 이견창의 글은 열행을 감정이 아닌 이념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데올로기화시키는 조선 후기 열녀전³³⁾ 특성을 잘 따르고 있다. 열의 행위가 순간적인 자살이든 장기간의 고생스러운 삶이든, 행위자의 이성에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입전 인물이 열(烈) 이념의 정당성을

31) 이견창, 『명미당전집』, 16권. “始李氏告其弟曰。吾所以爲此者。堅吾志。潔吾身以死而已。非爲先世子也。先世子何如人。豈賤人所敢言私哉... 萬一以此實流言。而重累世子。罪在李氏。其深匿不言有以夫。可謂忠且智矣。”

32) 『완역 이옥전집』, 301쪽

33) 이혜순, 김정미 역주,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8쪽.

납득했으며 그것을 삶의 최우선에 놓고 수호했다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왕실과 유학자들에게는 충분했다. 1434년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1617년에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나오는 인물들, 즉 성리학의 가르침 아래 잘 길러진 ‘이성적’ 인간의 존재는 조선 왕조 사회 질서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직 전>의 이씨는 유교적 교리의 교화 능력을 증명해 주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 여성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의 극한 발현이 열(烈)이라면, 이런 열절은 제도화되기 힘든 것이며, 굳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행위 주체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정의 발현이 중요해지는 자리에는 사대부 남성이 끼어들어 교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4. 천도(天道)에 대한 의심과 원망

논찬(論贊)은 작가가 인물에 가하는 해석이면서, 작가가 독자에게 원하는 독법 양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읽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독자들의 여러 가지 감성적 반응과 연상의 결과가 작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가장 바람직한 해석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³⁴⁾ 성해응과 이견창은 논평을 통해 입전 인물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 이씨를 열녀(烈女) 목록에 집어넣고, 이러한 인물의 존재가 당대 조선 역사에 시사하는 바, 특히 이념을 수호하는 인물로 구성된 건전한 당대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34) 비슷한 맥락에서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은 논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작품 말미에 논찬이 붙는다. 이 논찬부는 단순한 군더더기가 아니다. 작자는 지금까지의 서술의 의미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평가하며 혹은 지금까지의 서술이 모두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증거를 댄으로써 작품에 객관성의 외관을 최종적으로 부여한다.” (박희병(1998), 위의 책, 100쪽.)

성해응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논의에 대한 반증으로 이씨를 내세운다. 논찬 부분에서 이씨와 중국 송나라 인물 백희(伯姬)와의 유사점을 찾았다. 백희는 집이 불타고 있었지만, ‘여자는 밤에 혼자 나다닐 수 없다’는 유교적 예를 지키기 위해 피신하지 않고 불에 타 죽은 인물이다. 성해응은 이씨와 백희를 동일 선상에 놓으면서, 조선에도 중국의 백희와 비견 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과 역사의 자부심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사람들이 말하길 지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열절이 지킴이 이와 같다...이수칙이 화재를 피하지 않았던 송나라 백희(伯姬)의 행위이니 누가 지금의 사람은 옛 사람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겠는가.³⁵⁾

또한 이견창은 이씨를 중국 인물 병박양(丙博陽)에 비견하였다. 병박양은 황제의 목숨을 구하고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은 인물이다.³⁶⁾

이씨는 끝내 스스로 말하지 않다가 몇 십 년 뒤에야 비로소 알려졌으니, 이른바 뜻을 굳게 지키고 몸을 깨끗이 한 것이 더욱 미덥다 하겠다. 병박양(丙博陽)은 덕을 행했고 이수칙은 절개를 지켰는데 그들은 능히 말하지 않

35) 성해응, 『연경재전집』 55권. “論人每謂人古今不相及。節烈之行。熾於後世。豈古之人達節。今之人守節而然歟。若慶運宮人之代慈殿以殉身者。紀信之忠也。...李守則之不避火者。宋伯姬之行也。孰謂古今人不相及哉”

36) “병박양(丙博陽)은 효선제 때 박양(博陽)의 후(侯)에 봉해진 병길(邢吉)을 가리킨다. 기원전 91년, 한나라 무제 때 ‘무고(巫蠱)의 화(禍)’로 인해 황손 유진(劉進)을 비롯한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이때 이 사건의 심리를 맡았던 병길이 강보에 싸인 아기였던 훗날의 선제(宣帝) 유순(劉詢)의 목숨을 남몰래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 길렀는데, 선제가 즉위한 후에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차미희 외,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보고사, 2013, 198쪽.)

고 보답을 바라지 않았던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하겠다. 이수척을 누가 하찮은 여자라 하겠는가?³⁷⁾

이건창은, 이씨가 행한 열절을 바탕으로 그녀의 지위를 하찮은 여자에서 격상시켰다. 이에 반해 <수척전>의 저자 이옥은 입전 인물의 사회적 신분이나 역사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다. 이옥은 논찬에서 이씨의 덕행을 백이(伯夷)와 비견하고 있지만, 수척의 고생스럽고 보답 없는 삶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하늘의 뜻을 되묻고 있는 점에서 백이를 끌어다 쓴 이유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³⁸⁾ 사마천에 따르면 백이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의인이며 사마천은 그러한 백이의 생애에서 천도의 합리성을 의심하였다. 이옥도 이씨의 지정(至貞), 지열(至熱)이 좀 더 가치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하지 않은 하늘의 뜻을 슬퍼하고 있다.

...그런데 수척이 세상에 대해 끼친 바가 적지 않았지만 나는 이에 대하여 오히려 유감스러운 바가 있다...만일 옛 충신열사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바의 일을 진실로 넉넉하게 행하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하필 한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한 방에 갇힌 그림자 신세가 되어 울음을 삼키는 삼십 년이 되게 하였는가? 아마도 살아 정절을 지키는 것은 어렵고,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므로, 하늘이 지정 지열의 기운을 저곳에 모이지 않게 하고, 이곳에 모이게 하여 큰 어려움으로 그를 시험해 본 것인가? 슬프다.³⁹⁾

37) 이건창, 『명미당전집』, 16권. “李氏竟亦不自言。至數十年後始以聞。其所謂堅志潔身者。益信丙博陽以德。李守則以節。其能不言而不望報則均也。孰謂賤女子哉。”

38) 이옥의 작품 <차취이사전>도 정부가 의로운 사람에게 정당한 대접을 해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39) 『완역 이옥전집』, 305~306쪽.

이옥에 따르면, 이씨의 절행은 더 좋은 방향에서 쓰이지 못한 점에서 일종의 낭비이다. 이씨가 정렬(貞烈)을 발휘한 자체로는 만족스럽지 못했고 좀 더 극단적이고 영웅적인 발현을 소원한다.⁴⁰⁾ 한 인물의 행적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상 인물의 영웅적 행위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시대, 사건, 성별을 바꾸어 상상해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기록한 행위는 작가 이옥이 ‘의를 행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물 형상화와 서술자 역할에 만족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Ⅲ. 교훈성의 약화와 개인의 발견: 결론을 대신하여

심경호는 『한문 산문의 미학』에서 전의 형태를 가르는 기준으로 ‘격’(格: 문법)과 ‘의’(意: 주제 사상)를 들었다.

‘격’과 ‘의’가 모두 변격인 예로는 사기의 백이열전(伯夷列傳)이 있다. 사적을 서술함이 적고 의론이 많으며 행간에 영탄과 기의가 있기 때문이다. 격은 바르되 의가 변격인 예가 도연명의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으로 서술은 전의 체에 부합하지만 작가의 의중이 주로 서술되어 주관성이 농후하다.⁴¹⁾

이 기준에 따르면, 이옥의 <수칙전>은 사적을 서술한 것보다 작가의 의론이 많고, 작가의 주관적인 인물 해석이 강하다는 점에서 격과 의가 모두 변이인 예로 볼 수 있다. 17세기 말, 18세기에는 다양한 전이 창작되었는데, 작품 중에서는 이재(1657-1729)의 <홍열부전>이나 이덕무(1741-1793)⁴²⁾의 <은애전>처럼 묘사가 생생하여 흥미진진한 글이 있고, 박지

40) Youme Kim (2014), 위의 논문, 183쪽.

41)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90쪽.

원(1737-1805)의 <양반전>처럼 가난에 못 이겨 양반의 신분을 매때하는 인물을 다룬 작품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생생함, 양반 계급의 자아성찰을 촉구하는 인물, 인물의 범죄행동들⁴³⁾은 교훈성을 주는 전(傳)의 사회적 효용에 부합하여 어느 정도 용인되고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⁴⁴⁾ 하지만 이옥의 <수칙전>은 이씨의 슬픔과 고독, 숨겨진 욕망과 더불어 작가의 이야기 창작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열녀전(烈女傳)이 내포해야 할 신빙성과 이념성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이옥을 여성주의적, 반-성리학적, 나아가 근대성으로 읽는 것은 무리가 있다.⁴⁵⁾ <수칙전>에서 보여주는 작가의 여성관은 진보적이지 않고 성리학에 대한 비판은 암시되지도 않는다.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이념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⁴⁶⁾ 이는 여성을 다룬 다른 작품인 <상랑전>, <생열녀전>, <열녀이씨

42) 이덕무(1741-1793): 조선후기 실학자. 자는 무관(懋官), 호는 아정(雅亭), 청장관(靑莊館), 형암(炯庵), 영처다. 서얼출신이며 규장각 외각검서관으로 일했음. 문집으로는 『청정관전서』가 있다.

43) 이덕무의 <은애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은애가 노파를 살해한 사건을 다룬 <은애전>의 생생함은 교훈성을 주는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도덕적 교훈성을 한층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44) “전기에 나오는 인물은 ‘역사적’인물이지만 그 내용은 정서적 흥미와 도덕적 교훈 속에서 고도로 허구화된 것이다” (루샤오핑(2001), 위의 책, 162쪽.)

45) 이지양,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절’의 문제』,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 연구> 29, 2002, 451~458쪽에서도 이옥 작품을 여성주의적, 반성리학적으로 읽을 수 없음을 논하였다. 또한 이옥 작품의 의의를 근대성에서 찾은 연구들 가운데, 이현우는 이옥 소품을 일러 “성리학적 사고와 정통 권위에 도전한, 근대적 문학 정신에 가장 근접한 산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우, 『이옥소품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138쪽.) 또한 정대림은 “18세기 말의 박지원이나 이옥에 이르면 교화론의 잔영까지 청산하고 존화의 범주를 타파하기에 이른다.”라고 기술한다. (정대림, 『한국 고전 비평사』, 태학사, 2001, 154쪽.)

46) 임유경은 <수칙전>을 통해 작가가 열 이태올로기의 비인간성을 구현했다고 본다. “<수칙전>에서도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차탄이 극에 달해 올려는 사람도 있

전>을 보면 분명하다. <상랑전>은 유교 교리를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하층민 여성의 열행을 칭찬하며 입전하는데, 열 이데올로기 실천의 정당함에 대하여는 작중 인물이나 작가 둘 다 논하지 않는다. 상랑은 자신을 버린 남편을 위해서도 열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인물이다. <열녀이씨전>은 이씨가 남편의 삼년상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죽은 사건 자체의 기이함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생열녀전>은 남편의 병을 낮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살을 자르고 오랫동안 시아버지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서술의 중심이 있다. 이들 작품이 여성의 감정에 좀 더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성 인물을 다룸에 있어 감정 묘사가 뛰어난 것과, 작가가 진보적 여성관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박지원의 <열녀함양박씨전>과는 다르게 이옥의 <수칙전>은 ‘과부들이 수절을 하면서 겪는 고통이 과연 옳은 것인가?’와 같이 여성에 대한 당대 사고방식에 의문을 던지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이옥 <수칙전>의 문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옥의 작품은 인물의 도덕적 당위 및 역사적 의미를 성해웅, 이견창의 작품⁴⁷⁾처럼 강조하지 않았기에, 인물 형상화의 다양성을 열어 놓아 입전 인물 개인을 그

있다고 하여 주변인물의 반응을 담았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듯이 보이는 요소가 끼어있는 것도 커다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그런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며 열의 의미를 다시금 되문게 되는 것이다.”(임유경(1995), 위의 논문, 406~411쪽 참고.) 하지만 주변사람들이 울거나 차탄하는 반응을 보인 것은, 열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인가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충효열을 구현한 인물전에서 주변 인물들이 보여주는 도식적인 인정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7) “유지기(劉知機)는 ‘모의’장에서 서사 유형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하나는 겉보기에는 서술된 대상들을 담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상 재현된 대상들과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본질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유형이 현실을 진실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루샤오핑(2001), 위의 책, 132쪽).

려낼 수 있었다.⁴⁸⁾ 이는 조선 후기 전(傳) 문학의 유동성이 생동감 넘치는 인물 및 사건 묘사에 있을 뿐 아니라 전(傳) 장르의 본질에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념을 위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인물을 위해 이념을 껍데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 방법은 전통적 전 독법에 익숙한 독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며, 교화(教化)에는 효율적이지 않다. 치자(治者)의 입장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면이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신선함과 매력이 되는 이유임은 두말할 것이 없겠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개인의 발견이 전(傳) 문학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도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48) 이지양(2002), 위의 논문, 456~457쪽에서도 이옥 문학의 진정과 열절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덕무의 형상화에 대한 언급, “사람을 감동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는 작가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지적도 문학의 가치를 형상화에서 찾은 것이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 고전번역원DB.
성해응, 『이수척』, 『연경재전집』 55권. 고전번역원DB.
이건창, 『이수척전』, 『명미당전집』, 16권. 고전번역원DB.
이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수척전』, 『완역 이옥전집』 2권, 휴머니스트, 2009.
-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4, 1~341쪽.
박은정, 『이옥 열녀전의 열 관념에 대한 소고』, 『동방학』 10, 2004, 65~84쪽.
박희병, 『한국 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256쪽.
박희병, 『한국 고전 인물전 연구』, 한길사, 1992, 1~478쪽.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3, 1~454쪽.
서경호, 『중국소설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510쪽.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363쪽.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417쪽.
이지양, 『이옥의 문학에서 '남녀 진정'과 '열질'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433~462쪽.
이혜순, 김경미 역주,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468쪽.
이현우, 『이옥소품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55쪽.
임유경, 『이옥의 열녀전 서술방식과 열 관념』, 『어문학』, 1995, 397~418쪽.
정대립, 『한국 고전 비평사』, 태학사, 2001, 1~589쪽.
정인혁, 『조선후기 전계 단형서사체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6, 1~147쪽.
정환국, 『李鈺에게 있어서 여성-여성 소재 글쓰기의 성격에 대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2013, 251~281쪽.
차미희 외,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보고서, 2013.
최기숙, 『문밖을 나서니 갈 곳이 없구나』, 서해문집, 2007, 1~327쪽.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편, 『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2002, 1~402쪽.
- 루샤오핑, 『역사에서 허구로』, 도서출판 길, 2001, 1~278쪽.

Youme Kim. "The Life and Works of Yi Ok."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2014.

ABSTRACT

A Study of Stories on Exemplary Subjects
: Focusing on Yi Ok's "Tale of Such'ik"

Kim, Youme

This study examines Yi Ok's(1760 - 1815) biographies of exemplary people, focusing on the "Tale of Such'ik" in comparison with the biography works written by Sŏng Haeŭng(1760 - 1839) and Yi Kŏnch'ang(1852 - 1898). Yi highlighted Such'ik's life sufferings caused by upholding female chastity rather than depicting her as an epitaph of female virtues who willingly sacrificed her private pleasure. Yi created and re-organized anecdotes that represent Such'ik's loneliness and expressed his dissatisfaction with the belated rewards bestowed upon Such'ik. Yi also depicted the geographic location in which Such'ik lived, believed to be his own creation, to represent her as an extraordinary being rather than enumerating a chronological series of events, as in traditional biographical works. Yi adopted literary devices that enabled Yi to run counter to traditional conventions of biography. Traditionally, biographies of exemplary women largely aim to reveal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a person as a sound component of a Neo-Confucian society and also reaffirm the effectiveness of Neo-Confucianism, a state ideology, to cultivate people and enlighten the Chosŏn society. However, Yi Ok's story leads readers to doubt the seemingly satisfying lives of exemplary women and recognize that appropriate rewards and public recognition are essential to make people's lives worthy. By weakening didactic themes of the biography, Yi was able to reveal the inner-self of the woman subject who lived a bitter life.

Key Words Yi Ok, Such'ik chŏn, fictionalization of history, Pre-modern Korean literature, biographies of virtuous women

논문투고일	: 2016.7.14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18